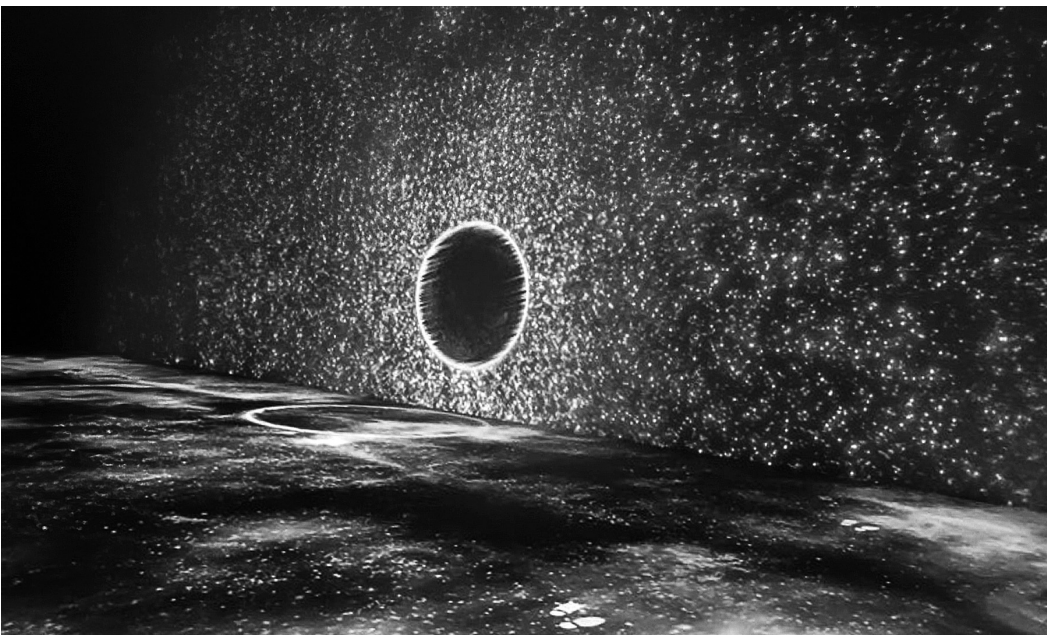


빛의 예술로 피어나는 ‘남원’

30일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 개관
문화 자원에 현대 기술 접목
몰입형 미디어 전시 등 콘텐츠
방문객에 열린 ‘문화쉼터’ 역할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 빛의 예술 만끽하세요.”
남원시가 오랜 기간 방치됐던 옛 비사벌콘도 부지를 복합문화공간 ‘달빛정원’으로 탈바꿈시키며 30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남원시는 개관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30일 개막하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맞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달빛정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달빛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따라 총 119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미디어아트 실증시설 피오리움(Fiorium)을 중심으로 구성된 3829㎡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다.
남원의 문화 자원에 현대적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예술 플랫폼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문화쉼터가 될 전망이다.
핵심 전시관인 피오리움은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제로 몰입형 미디어 전시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선보인다.
남원의 자연, 역사, 서정성을 디지털 감성으로



오는 30일 개관할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피오리움 콘텐츠의 한 장면.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감각적인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빛의 예술은 ‘감각의 확장’, ‘정서적 몰입’, ‘지역 정체성의 재발견’이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다.
‘달빛으로 열리는 감성의 문’을 통해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 선 관람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감각과 상상력이 흐르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한다.
시는 앞으로 달빛정원을 중심으로 광한루원과 함파우 아트밸리를 잇는 문화·관광 벨트를 본격화

하며, 남원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달빛정원과 피오리움은 남원의 감성과 문화적 깊이를 담은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적 영감을 경험하고 남원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땅 속 곳곳에 숨겨진 유산 찾는다

매장유산 정밀지표조사 추진
고창읍, 고수·아산면 우선 대상

고창군이 지하 매장 유산의 보존관리와 관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최근 군 관계자와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와 국가유산청 및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가 열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밀 지표조사, 보존조치 방안 수립, 유존지역도 제작 등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이 보고됐다.
사업은 땅 속에 국가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명확한 사전 정보 제공과 매장유산 훼손 방지,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고창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는 2005년의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바탕이 됐던 학술조사와 개발행위 사·발굴조사 결과 등으로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공간정보 서비스(GIS)’에 등재돼 있다.
하지만 20여년 간의 도시화와 다양한 개발행위



고창군은 지난 17일 군 관계자와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와 국가유산청 및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고창군 제공>

로 인해 지형 여건이 변화되면서 현재와 일치하지 않아 정보의 현행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면적(607.48㎢) 중 도심지인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면적 약 145.26㎢)을 우선적 대상지역으로 정했고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1950년) 이전까지의 매장유산에 대해 정밀지표조사를 할 예정

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고창의 매장유산 정보를 최신화해 매장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건축 및 개발행위 등 군민들의 토지 이용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함으로써 국가유산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여성농업인 3790명에 ‘생생카드’

올해 4억9200만원 투입...미용실·영화관 등 이용 최대 年 13만원

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4억 9200만원을 투입해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으로 총 3790명의 지역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195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의 여성 농어업인이며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차 접수를 통해 3336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자를 계속해서 모집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개인당 연간 13만원으로 지난해까지

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생생카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협 채움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자동 지급한다.
생생카드는 전북자치도 내 농협하나로마트,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수영장, 서점, 사진관, 안경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나 유흥·사행성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이용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은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高’ 극복

청년일자리 확대·지역 소비 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추진

정읍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맞아 청년일자리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업소당 위생용품과 메뉴판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소비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기존 청년 창업지원 대상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자는 전략이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도 공을 들인다. 지난해 12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

등 상권활성화 구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가능 구역으로 새로 추가 지정됐다. 시민들이 지역 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와 소비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도 개정했다.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주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나서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맞춤형 간호조무사 무료 양성

고창성모간호학원, 훈련생 20명 모집...교육 후 취업 지원도

고창군이 고창성모간호학원과 함께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성모간호학원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청·중장년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 구인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창성모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해 약 20명의 훈련생을 모집해 4~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관내 병의원에 취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은 고창군 거주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청·장년층 미취업자를 대

상으로 관내 훈련생 및 훈련기관에 취업 연계를 위해 지원을 한다.
선정된 교육생들에게는 훈련비 전액 무료이며,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들에게는 3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훈련기관과 교육생들이 모두 만족하고 적극적인 취업 연계로 취업 후에도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